

# 보육 및 양육의 정보자원으로서 인터넷 활용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 부모의 비교 -

Use of Internet as Sources of Information for Purpose of Rearing

-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U.S. Parents -

서혜전(Hye-Jeon Suh)<sup>1)</sup>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parental amounts of Internet use for purpose of rearing 2) to investigate their environment and preparation level to use Internet as educational information source 3)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U.S. parents in environment, level of preparation, and amounts of use of Internet for purposes of child rearing 4) to find out the factors of use of Internet for purposes of child rearing. The questionnaire used in this survey included five sections : background, environment, preparation, amount of total Internet use, and amount of Internet use for purposes of child rearing. Participants were 282 parents (128 American; 154 Korean) with at least one 3~ to 7-year-old child. Findings revealed that parents used the Internet frequently, but they did not frequently use the Internet for purposes of child rearing.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U.S. parents in environment, level of preparation, and amount of Internet use for purposes of child rearing. The main factor that affected use of the Internet for purposes of child rearing was 'trustworthiness of Internet information'. Finally, it was suggested the implications for better Internet use for purpose of rearing from the findings.

**Key Words** : 인터넷(Internet), 보육(Child Care), 양육(Rearing), 정보자원(Information Source).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지식과 정보가 급변하는 현 사회는 자녀양육

의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부모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지식기반사회는 다양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사람들

<sup>1)</sup> 부산디지털대학교 아동보육학과 전임강사

**Corresponding Author** : Hye-Jeon Suh, Department of Child Care & Education, Busan Digital University, Busan 617-701, Korea E-mail : childcare@bdu.ac.kr

요구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며 주도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과 생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양육을 위해 많은 정보자원을 이용한다(Peet, 1995). 선행연구들(Bartz, 1978; Crase, Carlson & Kontos, 1981; Geboy, 1981; Koepke & Williams, 1989)은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찾을 때 소아과 의사, 책, 잡지, 친구와 같은 외적인 정보자원을 사용하거나, 사회인지와 관련된 선행연구(Peet, 1995)에서는 부모 자신의 아동기 경험, 직관, 신념과 같은 내적인 정보자원을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보고서(서혜전·서영숙, 2002; Haugland, 2000)에서는 인터넷이 갖고 있는 '정보접근용이성'과 '시공간의 초월성'이라는 장점들 때문에 자녀양육을 위한 중요한 외적 정보자원 중 하나로 높게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대됨에 따라 직장가진 부모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대중적인 정보교환의 장으로 인식됨에 따라 부모들이 바로 접하게 되는 자녀양육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이나 비실시간으로 전문가와 다른 부모들에게 적절하고 현실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라 공감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Elkind, 1998; Gimbert & Cristol, 2004; Haugen, 1998; Haugland & Editor, 1997; Haugland, 2000; Trepanier-street 등, 2001)은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와 자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중 하나로 인터넷을 제시하고 있으며, 양육 정보자원으로서

의 인터넷 활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에서는 유·아동을 위한 놀이자료와 아동발달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자녀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산재해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풍부한 참고자료를 가지고 부모는 아동의 질문에 적절히 답하고, 새로운 발견을 제시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유아의 특별한 욕구나 문제행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적절한 대처를 해나갈 수 있고 유용한 놀이 활동 자료를 다운받아 아동의 놀이와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나 자녀양육 전문가와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은 이메일, 게시판, 컴퓨터 컨퍼런싱을 통한 비실시간 상호작용과 채팅, 실시간 컨퍼런싱을 통한 실시간 상호작용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와 함께 다른 친구,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 친척들과도 상호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온라인 세미나, 가상월드 트립과 가상실험과 같은 가상 시뮬레이션 활동 또한 인터넷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발달전문가나 다른 부모들과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상호작용과 대화를 할 수도 있다. 특히 부모는 가상토론환경을 통해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과 견해를 나누고, 토의하고 협상할 수 있어 바로 접하게 되는 자녀양육 문제 상황을 잘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 활용 활동은 아동에게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능력, 결정능력, 창의력, 언어기술, 지식, 연구기술, 정보통합능력, 사회적 기술,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학습 기

회를 제공하기 때문에(Haugland, 2000), 부모들은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 특히 협력활동(cooperative activities)을 해봄으로써 가족 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아이의 작품을 출판할 수 있는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서혜전(2001)은 인터넷 사용자 수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볼 때 온라인 부모교육이 자녀양육을 위한 유용한 정보획득 방법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 지도를 위한 정보자원으로서 인터넷의 유용성을 많이 보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모들이 자녀양육의 정보자원으로 인터넷이란 매체를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양육과 보육의 정보자원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한 준비도와 환경들,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를 분석함으로써 부모들을 위한 인터넷 정보 제공의 효과적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안할 뿐 아니라,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하여 인터넷이란 매체가 자녀양육의 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2002년 3월 기준으로 세계에서 인터넷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인 미국을 선정하여 한국과 비교해봄으로써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부모들이 인터넷을 보육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효과적 수행에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 2. 연구문제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터넷의 사용빈도와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정도는 어떠한가?

1.1 유아자녀를 둔 부모들의 인터넷 사용빈도는 어떠한가?

1.2 유아자녀를 둔 부모들의 인터넷 보육적 사용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정도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가?

<연구문제 3> 한국과 미국 부모들 간에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관련 환경변인, 준비도변인과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3.1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을 위한 그들의 환경에 차이가 있는가?

3.2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을 위한 그들의 준비도에 차이가 있는가?

3.3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3. 용어 정의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use of Internet as purpose of rearing, educational use of Internet)** :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와 지식 획득, 상호작용, 의사소통 및 대화 등을 통해 교육과 보육적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 이 연구는 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인식에 기반을 둔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에는 아동발달과 양육, 자녀지도에 대한 정보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

인터넷 매체를 통해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하는 등의 상호작용하는 것, 유익한 놀이 활동자료나 웹 학습자료(동영상, 그래픽, 음성 등)를 다운로드 하기 위한 것, 아동 양육을 위해 사이버 강좌를 수강하는 것, 이메일이나 채팅을 사용함으로써 아동 상담자와 상담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1~5세의 유아자녀를 둔 282명의 부모로서, 미국 인디애나 주의 도시 인디애나폴리스(Indianapolis), 라피엣(Lafayette), 카멜(Carmel), 리치몬드(Richmond)에 거주하는 부모 128명과 한국의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154명이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 부모의 평균 패턴을 분명히 하기 위해 최선의 샘플 커뮤니티를 중산층으로 보고 이에 부합되는 지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원을 통해 질문지가 배포되고 수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의 기준을 인구 5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평균 임금과 보통의 교육을 가진 부모에 일치하는 집단으로 보았다. 보통의 교육은 한국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과 미국 기준으로 교육정도 12년으로 정하였다. 또한 평균임금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각국의 근로자 통상 생활급여'로 그 기준을 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두 기준에 일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디애나주 소재 아동발달가족학과의 교수 1인으로부터 도움을 얻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정보인 학력, 연령, 자녀수, 직업유무 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정보

변 인 구 분	한 국 N(%)	미 국 N(%)	합 계 N(%)	
성 별	여	118 (76.6)	100 (78.1)	218 (77.3)
	남	36 (23.4)	28 (21.9)	64 (22.7)
학 력	고졸	44 (28.6)	34 (26.6)	78 (27.6)
	2년제대졸	40 (26.0)	28 (21.9)	68 (24.1)
	4년제대졸	47 (30.5)	42 (32.8)	89 (31.6)
	대학원석사졸	15 ( 9.7)	14 (10.9)	29 (10.3)
	석사 이상	8 ( 5.2)	10 ( 7.8)	18 ( 6.4)
자녀수	1명	60 (39.0)	67 (52.3)	127 (45.1)
	2명	82 (53.2)	48 (37.5)	130 (46.1)
	3명	12 ( 7.8)	9 ( 7.0)	21 ( 7.4)
	4명	0 (0)	2 ( 1.6)	2 ( 0.7)
	5명	0 (0)	2 ( 1.6)	2 ( 0.7)
직업유무	있다	78 (50.6)	89 (69.5)	167 (60.3)
	없다	71 (46.1)	39 (30.5)	110 (39.7)
연 령	30세 이하	16 (10.4)	18 (13.6)	34 (11.8)
	31-35세	79 (51.3)	53 (40.2)	132 (46.0)
	36-40세	27 (17.5)	30 (22.7)	57 (19.9)
	41세 이상	7 ( 4.5)	14 (10.6)	21 ( 7.3)
컴퓨터 사용기간	2년 미만	28 (18.2)	0 (0)	28 (9.8)
	2~4년	40 (26.0)	16 (12.1)	56 (19.9)
	5~7년	21 (13.6)	18 (13.6)	39 (13.6)
	8~10년	36 (23.4)	18 (13.6)	54 (18.8)
	11년이상	28 (18.2)	76 (57.6)	104 (36.2)
인터넷 사용기간	1년 미만	20 (13.0)	2 ( 1.5)	22 ( 7.7)
	1~2년	39 (25.3)	4 ( 3.0)	43 (15.0)
	3~4년	59 (38.3)	34 (25.8)	93 (32.8)
	5~6년	18 (11.7)	46 (34.8)	64 (22.3)
	7년 이상	18 (11.7)	42 (31.8)	60 (20.9)

### 2. 연구도구

본 연구 조사는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질문지의 문항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질문지 문항구성

주요 변인	하위변인	문항수
개인변인	자기조절태도	5
	개인배경요소	10
환경변인	물리적 환경	4
	심리적 환경	4
준비도변인	인터넷자기효능감	18
	인터넷특성 인식	15
	인터넷정보 신뢰감	7
기 타	인터넷 사용빈도	3
종속변인	인터넷 보육적 사용정도	17

1)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개인변인, 환경변인, 준비도변인, 기타)은 그 요인들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측정도구가 있었기에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을 일부는 그대로, 또 일부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변안, 수정되었으며, 수정한 문항의 적합성은 아동학 전공교수 1인, 교육공학 전공 교수 1인, 관련 전공 박사학위자 2인으로부터 검토되었다. 또한 각 하위 요인의 문항간 일관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1) 개인 변인

개인 변인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정보인 개인배경요소(성별, 연령, 학력, 자녀 수, 자녀의 나이, 직업유무와 직업유형, 컴퓨터 사용경험 유무, 컴퓨터 사용해온 기간, 인터넷 사용해온 기간)를 알아보기 위한 10문항과 자기조절태도 관련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자기조절태도는 Suh & Suh (2002)에서 사용한 자기조절학습전략 관련 문항 중 자기조절관련 5문항만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의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나

타날 수 있으며, 신뢰도는  $\alpha=.82$ 로 나타났다.

(2) 환경변인

환경 변인은 물리적 환경 관련 4문항과 심리적 환경 관련 4문항 총 8문항으로 측정되었다. Suh & Suh(2002)가 개발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단 인터넷 사용을 위한 지원 환경과 관련해서 사전연구에서 사용된 3 문항은 인터넷 사용에 맞게 수정되었으며, 관련 전공교수 1인에게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전체 환경변인의 신뢰도는  $\alpha=.80$ , 하위변인인 물리적 환경의 신뢰도는  $\alpha=.81$ , 심리적 환경은  $\alpha=.79$ 로 나타났다.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의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나타날 수 있다.

(3) 준비도변인

준비도 변인에는 인터넷 자기효능감, 인터넷 특성에 대한 인식, 인터넷정보 신뢰감이라는 3가지 하위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전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인터넷 자기효율성(Joo 등, 2000)과 컴퓨터 기술(Koroghlanian and Brinkerhoff, 2001)이라는 3가지 척도를 토대로 변안하여 최종 18문항이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alpha=.95$ 였다. '인터넷 특성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 정보 신뢰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Anderson과 Harris(1997)가 개발한 '텔넷 매체 특성 척도'를 변안, 인터넷 사용에 초점 두고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타당도 검증 후 각각 15, 7문항만이 사용되었으며, 신뢰도는 각각  $\alpha=.89$  과  $\alpha=.84$  였다. 준비도 변인의 모든 문항들은 5점 척도이며 전체 신뢰도는  $\alpha=.88$ 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이며, '인터넷 자기 효능감'은 '매우 자신 있다'의 5점부터 '전혀 자신 없다'의 1점까지, '인터넷 특성 인식'과 '인터넷 정보 신뢰감'은 '매우 그렇다'의 5

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나타날 수 있다.

#### (4) 기타

'인터넷 사용 빈도'는 일주일단위 인터넷 사용시간 및 접속 빈도, 한번 접속 시 인터넷 사용 시간 등을 알아보는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모든 문항에 대한 답변은 시간이나 빈도별로 5가지 범주로 나눠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주일 단위 인터넷 사용시간은 1시간미만, 1~3시간, 4~6시간, 7~9시간, 9시간 이상 중에서 선택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2) 종속변인 -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과 테크놀로지의 교육적 사용과 관련된 선행연구(Anderson, 2000; Gimbert & Cristol, 2004; Haugen, 1998; Haugland & Editor, 1997; Haugland, 2000; Shade, 1996; Trepanier-street 등, 2001; Wright, 1998)와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20 문항의 5점 척도 질문지를 연구자가 제작하고 질문내용의 적합성, 문항 내용 및 표현의 적절성, 의미의 명확성등을 관련 전공 교수 2인과 박사학위자 5인에게 타당도를 검토받은 후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며 관련된 변수들이 묶여지는지를 알아보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3가지 요인으로 묶이는 각각을 정보획득차원, 의사소통 차원, 상호작용 차원으로 명명하는 절차를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판정되었으며 최종 17문항이 선정되어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 문항들은 '일주일에 3~5번 이상'이면 5점부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이면 1점까지 나타날 수 있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alpha=.88$

이었으며, 정보획득차원의 신뢰도는  $\alpha=.87$ , 의사소통 차원의 신뢰도는  $\alpha=.90$ , 상호작용 차원은  $\alpha=.85$ 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질문지는 프린트된 자료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배부, 회수하였다. 부모가 아이들을 등원시키거나 데려갈 때 기관에 제출하면 직접 원장으로 통해 수거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산층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정하기 위해 인디애나주 소재 아동발달가족학과의 교수 1인으로부터 도움을 얻었으며, 본 연구에 관한 설명 및 협조 부탁의 서신을 기관의 원장에게 보낸 후 전화로 다시 의사를 물어 보고, 본 연구 조사에 참여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기관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

연구 도구의 신뢰도와 요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요인 분석은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 문항들에 있어 '탐색적 요인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 문제 1번을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이 이뤄졌다. 여기에는 각 변인과 하위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과 각 문항당 빈도와 백분율이 산출되었다. 연구문제 2번을 위해 각 변인들간의 상관분석이 이뤄졌으며, 연구문제 3번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연구문제 4번을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를 위한 분석도구로는 SPSS Window 10.0 이 사용되었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연구문제 1 : 인터넷의 사용빈도와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정도는 어떠한가?

##### 1) 유아자녀를 둔 부모들의 인터넷 사용빈도는 어떠한가?

인터넷 사용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일주일 단위 인터넷 사용시간 및 접속빈도, 한번 접속시 인터넷 사용시간을 알아보는 3문항의 빈도, 백분율과 평균이 산출되었다.

우선, 연구대상 전체 부모의 일주일 단위 인터넷 사용시간에 있어 1시간 미만 4.9%(N=14), 1~3시간이 29.3%(N=84), 4~6시간이 23.3%(N=67), 7~9시간이 14.3%(N=41), 9시간 이상이 25.8%(N=74)로 나타났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일주일동안 1~3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9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고, 평균이 3.27로서 평균 6시간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부모(M=3.41)가 한국 부모(M=3.16)보다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주일동안 인터넷 사용시간이 미국 부모가 더 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일주일 단위 인터넷 접속빈도에 있어 전혀 사용치 않음이 1.0%(N=3), 1~3번이 18.1%(N=52), 4~6번이 30.3%(N=87), 7~9번이 11.1%(N=32), 10번이상이 36.6%(N=105)로 나타났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일주일 동안 인터넷을 10번 이상 접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을 보고했으며, 평균이 3.66으로 나타남으로 평균 6번이상 접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부모(M=4.02)가 한국 부모(M=3.37)보다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이것은 미국 부모가 한국 부모보다 일주일동안 인터넷에 접속하는 빈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에 한번 접속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15분 미만이 8.7%(N=25), 15~30분이 22.0%(N=63), 31~45분이 25.1%(N=72), 46~60분이 15.3%(N=44), 1시간 이상이 26.5%(N=76)으로 나타났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인터넷에 한번 접속시 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평균 3.29로서 한번 접속시 45분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미국 부모(M=3.10)가 한국 부모(M=3.45)보다 평균점수가 낮았으며, 한국 부모가 미국 부모보다 인터넷에 한번 접속 시 더 오래동안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 유아자녀를 둔 부모들의 인터넷 보육적 사용 정도는 어떠한가?

본 연구문제를 위해서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정도와 그 하위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이 산출되었다.

위 표를 토대로 볼 때 한국부모가 미국부모보다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뿐 아니라 그 하위 변인들 모두에서 그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 부모가 미국 부모보다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자원으로서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

〈표 3〉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 평균 및 표준편차

변 인	미 국	한 국	전 체	
정보 획득 차원	M	2.28	3.02	2.69
	SD	1.16	1.18	1.23
의사소통 차원	M	1.78	2.13	1.97
	SD	1.12	1.27	1.23
상호작용 차원	M	2.48	3.06	2.80
	SD	1.22	1.23	1.27
인터넷의 보육적사용정도	M	2.05	2.60	2.35
	SD	1.95	2.34	2.04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차원’이 하위변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것은 인터넷에 있는 온라인 게임이나 놀이를 자녀와 함께 더 많이 하거나 유익한 가족활동을 통한 자녀와의 상호작용 매체로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가 정보획득이나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보다 더 많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다른 부모와 정보를 교환하거나 아동발달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의사소통 차원으로 인터넷 사용 정도는 다른 하위변인들보다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M=1.97), 이것은 ‘두달에 1번정도 사용’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 2. 연구문제 2 :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정도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가?

본 연구문제는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정도 관련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되었다.

<표 4>를 보면,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정도는 환경변인, 준비도변인, 인터넷의 사용빈도와 정

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인터넷 사용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부모들은 자녀양육과 보육을 위한 정보자원으로서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개인변인 분석 시에는 연구대상자의 일반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개인배경요소’는 제외하고 ‘자기조절태도’만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변인인 자기조절태도는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정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정도에 있어, 환경 변인 중에서도 물리적 환경은 상관이 없었으나, 심리적 환경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거나 인터넷 사용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해결을 지원해줄 사람이 있거나 인터넷 사용하도록 격려 받거나 사용 전에 적절한 교육이나 도움을 받은 등 심리적 지원과 격려가 많이 있

<표 4>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정도 관련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1.00									
2	.194*	1.00								
3	.069	.264**	1.00							
4	.157	.386**	.411**	1.00						
5	.141	.195*	.186*	.182*	1.00					
6	.188*	.253**	.201*	.023	.237**	1.00				
7	.006	.071	.224**	.132	.183*	.138	1.00			
8	.224**	.173*	.199*	.428**	.344**	.278**	.263**	1.00		
9	.077	.203*	.133	.200*	.356**	.193*	.224**	.498***	1.00	
10	.089	.053	.201*	.170*	.443**	.087	.521***	.392**	.335**	1.00

\* $p < .05$  \*\* $p < .01$  \*\*\* $p < .001$

- 1 : 자기조절태도      2 : 물리적 환경      3 : 심리적환경      4 : 전체 환경변인  
 5 : 인터넷자기효능감      6 : 인터넷특성 인식      7 : 인터넷정보 신뢰감  
 8 : 전체 준비도변인      9 : 인터넷 사용빈도      10 :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



을수록 자녀양육의 정보자원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부모들의 인터넷 보육적 사용정도는 심리적 지원이나 격려적인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준비도 변인 중에서 ‘인터넷 자기 효능감’과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감’은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인터넷 활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인터넷에 제시된 정보들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자원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준비도 변인 가운데 ‘인터넷특성 인식’은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의 사용빈도는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부모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을 자녀양육의 정보자원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연구문제 3 : 한국과 미국 부모들 간에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관련 환경변인, 준비도 변인과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 1)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을 위한 그들의 환경에 차이가 있는가?

유아 자녀를 둔 한국과 미국 부모간의 인터넷 환경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변인인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에 있어서는, 한국 부모와 미국 부모 간에 물리적 환경에는 차이가 없었고, 심리적 환경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한국과 미국 부모의 환경 간 차이

		평	균	표준편차	t
물리적 환경	미국	4.04	0.69		.233
	한국	4.02	0.56		
심리적 환경	미국	3.47	0.84		4.314***
	한국	3.06	0.72		
전체 환경	미국	7.51	1.15		3.317***
	한국	7.07	1.02		

\*\*\* $p < .001$

#### 2)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을 위한 그들의 준비도에 차이가 있는가?

한국과 미국 부모 간에 인터넷 활용 ‘준비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통해 볼 때, 미국부모가 한국부모보다 인터넷 활용을 위한 준비도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준비도 변인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자기효능감은 한국부모와 미국부모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t=4.692, F=0.854, P=0.000$ ), 인터넷특성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정보에 대한 신뢰감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부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한국과 미국 부모의 인터넷활용 관련 준비도 차이

		평	균	표준편차	t
인터넷 자기효능감	미국	4.34	0.79		4.692***
	한국	3.91	0.74		
인터넷 특성에 대한 인식	미국	4.28	0.77		.876
	한국	4.20	0.71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감	미국	3.37	0.52		1.299
	한국	3.29	0.59		
선 체 준비도 변인	미국	14.73	3.79		4.077***
	한국	13.01	3.17		

\*\*\* $p < .001$

3)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한국과 미국부모 집단간에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을 보면, 한국부모가 미국부모보다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양육과 보육을 위한 정보획득이나 상호작용을 위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가 미국부모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의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보육 및 아동발달 관련 정보획득차원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에 있어서 한국부모가 미국부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부모는 인터넷에 있는 보육 및 아동발달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달에 1번 이상은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부모는 2~3달에 1번 이상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육 및 아동발달 관련하여 전문 상담가와 이메일, 메신저, 채팅을 통해 의사소통하기 위해

<표 7> 한국과 미국 부모의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 차이

		평균	표준편차	t
정보획득 차원	미국	2.28	1.16	7.137***
	한국	3.02	1.18	
의사소통 차원	미국	1.78	1.12	3.342**
	한국	2.13	1.27	
상호작용 차원	미국	2.48	1.22	5.753***
	한국	3.06	1.23	
인터넷보육적 사용정도	미국	2.05	1.95	6.963***
	한국	2.60	2.34	

\*\*p<.01 \*\*\*p<.001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한국부모가 미국부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부모는 보육 및 아동발달 관련 의사소통을 위해 2~3달에 1번 이상은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부모는 2~3달에 1번 미만정도로 평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와 함께 온라인게임을 하거나, 사진을 보거나 놀이공원이나 박물관 사이트에 자녀와 함께 들어가보거나 유익한 가족활동을 하는 등 자녀와 인터넷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 정도'에 있어서도 한국부모가 미국부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부모는 한달에 1번 정도에 가깝게 인터넷 매체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목적으로 미국부모는 2~3달에 1번 이상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문제 4 :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4번을 위해 우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변인을 다 투입한 결과에서  $\beta$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들을 추출하여 이 중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을 찾아내기 위해 동시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시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표 9>와 같다.

<표 8> 한국부모대상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에 영향미치는 요인

변인	R <sup>2</sup>	$\beta$	t값
인터넷정보에 대한 신뢰감	.401	.459	7.099***
인터넷 자기효능감		.360	5.569***
F=49.453***			

\*\*\*p<.001

한국부모에 있어서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준비도 변인의 하위요인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감'과 '인터넷 자기 효능감'으로 나타났으며, 이 2개의 변인들이 한국부모의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를 40.1% 설명하고 있다( $F=49.453, p<.001$ ). 특히 이 중에서  $\beta$  값이 .459 인 '인터넷정보에 대한 신뢰감' 변인이 한국부모의 인터넷 보육적 사용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인터넷 정보들이 신뢰로우며 인터넷 사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높게 가지고 있으면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미국부모의 인터넷 보육적 사용정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환경 변인의 하위 변인인 '심리적 환경', 준비도 변인의 하위 변인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감'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2개의 변인들이 미국부모의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를 48.6% 설명하고 있다( $F=44.940, p<.001$ ). 특히 이 중에서  $\beta$  값이 .420 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감' 변인이 미국부모의 인터넷 보육적 사용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심리적 환경'변인의  $\beta$  값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심리적 자원과 격려가 잘 이뤄지고 있는 환경에 있고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있을 때 자녀

<표 9> 미국부모대상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에 영향미치는 요인

변 인	R <sup>2</sup>	$\beta$	t값
인터넷정보에 대한 신뢰감	.486	.420	5.203***
심리적 환경		.409	5.065***
$F=44.940$ ***			

\*\*\* $p<.001$

양육을 위한 정보자원으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부모 모두에서 '인터넷정보에 대한 신뢰감'이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으로써 국가와 상관없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자원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감임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보육 및 자녀양육 정보자원으로써 인터넷 활용도에 대해 분석하고 미국과 한국 부모간의 차이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를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부모가 한국 부모보다 인터넷 사용빈도가 더 높았지만, 자녀양육의 정보자원으로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는 한국부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인터넷의 사용빈도가 바로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터넷에 자주 접속하는 학생일수록 원격 교육에 높은 참여도를 보인다고 밝힌 김소연(2000)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 비이용자보다 자녀양육의식이 높았다고 보고한 최정신(2002)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대상자들은 인터넷 비이용자보다 자녀양육의식이 더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후에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도까지의 경로를 탐색하여 실제 인터넷 사용하는 유아 부모

가 양육의 정보자원 매체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기까지의 여러 변인들을 추적하는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둘째,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에 자기조절 태도와 같은 개인변인은 상관이 없었으며, 환경 변인과 준비도 변인은 정적 상관이 있었다. 환경 변인 중에서 '물리적 환경'은 상관이 없었으며 '심리적 환경'만이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물리적 환경보다는 인터넷 사용을 격려하거나 지원하는 심리적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을수록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자원으로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준비도 변인 중에서 '인터넷 자기 효능감' 과 '인터넷 정보 신뢰감'은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인터넷 특성 인식'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CMC 유용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CMC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Grabowski, Suciati, & Pusch(1990)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것이며, 이용할 매체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그것의 사용정도가 높은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셋째, 자녀 양육을 위한 정보 자원으로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도에 있어 한국과 미국 부모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한국 부모가 미국 부모보다 자녀 양육의 정보 자원으로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인터넷 역사가 미국보다 짧은 한국이지만 인터넷 이용 증가율이 미국보다 크다고 보고한 이영주(2001)의 조사결과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식과 정보가 급변함에 따라 부모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 서혜전·서영숙(2002)의 주장을 토대로 볼 때,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자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시공간의 제한이 없는 인터넷을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위한 효과적 매체로 활용한다면 한국 부모 역할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넷째, 한국과 미국 부모 간에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을 위한 환경에 차이가 있었으며, 더 구체적으로 볼 때 물리적 환경에는 차이가 없었고, 심리적 환경에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에 차이가 없었다는 본 연구결과는 인터넷 역사가 10여년에 지나지 않으나 인터넷 관련 이용현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보고한 이영주(2001)의 주장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부모보다 미국 부모의 심리적 환경이 더 잘 구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인터넷 역사가 오래 되었고 인터넷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위한 격려와 지원을 위한 환경이 더 잘 구축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산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을 위한 준비 정도에 있어 한국과 미국 부모 간에 차이가 있었고, 미국 부모가 한국 부모보다 인터넷 사용을 위한 준비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별로 보면 인터넷 자기효능감은 두 국가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 인터넷 특성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감에 있어서는 두 국가의 부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 사용기간이 11년 이상인 미국 부모는 57.6%, 한국 부모는 18.2%였으며, 인터넷 사용 기간이 5년 이상인 미국 부모는 66.6%, 한국 부모는 23.4%였으므로 나타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정보 결과와 연관지어 볼 때,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기간이 길면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일반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유치원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 사용빈도와 기간은 높지만 인터넷 사용능력은 초보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한 심숙영외(2002)의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지만 연구대상자의 차이에서 온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준비도 요인과 환경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인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태도와 같은 개인변인은 예측요인이 아니었으므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웹기반 부모교육 참여도의 예측요인이었음을 밝힌 서혜전, 서영숙(2002)과 Yang(1991)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온라인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자원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상반된 결과는 선정된 연구대상자의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서혜전, 서영숙(2002) 연구의 대상자는 많은 부모들 중 스스로 10주간의 온라인 부모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으며, 본 연구 대상은 일반 부모들이었다.

하위변인별로 보면, 한국부모에 있어서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감'과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미국부모에 있어서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감'과 '심리적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신뢰감이 높은 경우, 인터넷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경우, 인터넷 사용을 위한 심리적 지원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가 높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에 영향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본 연구결과는 인터넷활용능력이 온라인 부모교육 참여도의 예측요인이 아니었음을 밝힌 서혜전·서영숙(2002)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지만,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수행능력을 갖춘 학습자가 웹사이트에 더 자주 접속한다고 밝힌 김소연(200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이는 인터넷 정보검색 및 의사소통, 정보조직 능력등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자원으로 인터넷을 빈번히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을 위한 심리적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본 연구결과는 Riel & Levin(199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며 정재삼, 임규연(200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는데, 이런 차이는 연구대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연구대상자는 학부학생들이었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성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육아를 포함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정의 협력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물리적 환경은 영향 요인이 아니었는데, 이런 결과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격려해주는 사람이 가까이 있거나(Kember, 1989), 문제가 생겼을 때 기술적 문제해결을 지원해주는 환경을 갖고 있을 때 인터넷을 보육적 목적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임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과 미국부모 모두에서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웹사이트 평가항목에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밝힌 Harris(1997)와 김효정(2002)의 주장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내용과 콘텐츠의 충실도를 평가영역에 포함시킨 전자신문사와 조선일보사의 기사들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런 선행 연구들의 주장을 본 연구 결과와 연관시켜 설명하면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자녀양육 관련 정보가 가치 있으며 더 나은 부모역할을 하도록 돕게 한다고 믿는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의 보육적 사용정도가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부모대상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기관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은 인터넷에 제시된 정보가 신뢰로울 때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자원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가 높은 만큼, 부모대상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기관은 신뢰로운 정보 산출과 구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이용자 수가 늘고 인터넷 사용빈도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부모들의 특성을 파악한 접근 용이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양 국가간의 연구대상 선정 시 최대한 평균 패턴을 분명히 하고 최선의 표본 집단을 산출하도록 노력했지만 질문지가 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회수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개개 부모가 진정 중산층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부모대상 온라인 사이트와 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자원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변인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인터넷 사용빈도가 높다고 해서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 한국의 부모가 미국의 부모보다 인터넷의 보육적 사용정도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인터넷정보에 대한 불신감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더욱 의미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이 자녀양육의 정보자원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관련하여 정보자원으로 인터넷 활용 후 그 효과를 산출하는 연구,

인터넷을 자녀양육의 정보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자녀양육의식과 방식에서의 차이 연구, 양육의 정보자원 매체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기까지의 여러 변인들을 추적하는 경로 분석 연구, 그리고 다양한 내외적 정보자원에 대한 총체적 논의 관련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김소연(2000). 웹기반 가상교육에서 학습자의 접속횟수와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김효정(2002). 인터넷 교육사이트 평가요인이 사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서혜전(2001). 웹기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학습성과 관련 요인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서혜전·서영숙(2002). 웹기반 부모교육 성과의 예측 변인에 관한 연구 :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대상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7(2), 129-153.

심숙영·서혜전·서영숙(2002). 유치원 교사 원격교육 직무 연수에 대한 강좌 평가 및 효과 분석. *유아교육연구*, 22(3), 23-41.

이영주(2001). 인터넷 쇼핑물 이용 소비자의 정보탐색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정재삼·임규연(2000). 웹기반 토론에서 학습자의 참여도, 성취도, 및 만족도 관련 요인의 효과분석. *교육공학연구*, 16(2), 107-135.

최정신(2002). 일본의 보육지원시책과 자녀양육의식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Anderson, G. T.(2000). Computers in a developmentally appropriate curriculum. *Young Children*, 55(2), 90-93.

Anderson, S. E., & Harris, J. B.(1997). Factors associated with amount of use and benefits obtained by users of statewide educational telecomputing

- network.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45(1), 19-50.
- Bartz, M.(1978). Selected childrearing tasks and problem of fathers and mothers. *The Family Coordinator*, 27, 209-214.
- Cruse, S. J., Carlson, C., & Kontos, S.(1981). Parent education needs and sources as perceived by pare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 221-231.
- Elkind, D.(1998). Computer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Child Care Information Exchange*, 123, 44-46.
- Geboy, M. J.(1981). Who is listening to the "experts?" The use of child care materials by parents. *Family Relations*, 30, 205-210.
- Gimbert, B., & Cristol, D.(2004). Teaching curriculum with technology : Enhancing children's technological competence during early childhood.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1(3), 207-216.
- Grabowski, B., Suciati, & Pusch, W.(1990). Social and intellectual value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s in a graduate community. *ETTI*, 27, 276-283.
- Harris, D.(1997). *Secrets of successful web sites*. New Jersey : Pearson Education.
- Haugen, K.(1998). Using technology to enhance early learning experiences. *Child Care Information Exchange*, 123, 47-56.
- Haugland, S. W., & Editor, D.(1997). Children's home computer use : An opportunity for parent/teacher collabor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5(2), 133-135.
- Haugland, S. W.(2000). Early childhood classrooms in the 21st century : Using computers to maximize learning. *Young Children*, 55(1), 12-18.
- Joo, Y. J., Bong, M., & Choi, H. J.(2000). Self-efficacy for self-regulated learning, academic self-efficacy, and Internet self-efficacy in Web-based instruction.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 Development*, 48(2), 5-17.
- Kember, D. A.(1989). Longitudinal-process model of drop-out from distance educ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0(3), 278-299.
- Koepke, J. E., & Williams, C.(1989). Child-rearing information : Resources parents use. *Family Relations*, 38, 462-465.
- Koroghlanian, C. M., & Brinkerhoff, J.(2000). An investigation into students' preexisting computer skills and attitudes toward internet-delivered instruc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Systems*, 29(2), 119-141.
- Peet, S. H.(1995). Parental Perceptions of the use of Intenal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children's development.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6(2), 145-154.
- Riel, M. M., & Levin, J. A.(1990). Building electronic communities : Success and failure in computer networking. *Instructional Science*, 19(2), 145-169.
- Shade, D. D.(1996). Software Evaluation. *Young Children*, 5(6), 17-21.
- Suh, H. J., & Suh, Y.(2002). The factors related to learning outcome in web-based lifelong learning progra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ing in Education 2002*.
- Trepanier-Street, M. L., Hong, S. B., & Bauer, J. C. (2001). Using technology in Reggio-Inspired Long-term project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8(3), 181-188.
- Wright, J. L.(1998). A new look at integrating technology into the curriculum.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6(2), 107-109.
- Yang, Y. C.(1991). *The effect of self-regulatory skills and type of instructional control on learning from CBI*.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Tallahassee, FL.

2004년 8월 31일 투고 : 2004년 10월 2일 채택